

진짜 종군 기자

불잡히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자기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시리아 남자를 보고서야 살았다는 걸 느꼈어.

내 등에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카메라 가방이 있었어.

- 프리랜서 사진기자 부아쟁이 사망 4일 전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서 -



글. 박유리
국민일보 국제부 기자



올리비아 부아쟁(Olivier Voisin)

프랑스 국적의 프리랜서 사진기자 올리비아 부아쟁(38, 이하 '부아쟁'). 그는 한국 입양아다.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던 부아쟁은 지난 2월 24일 이드립(Idlib) 지역에서 머리와 팔에 포탄 파편을 맞고 사망했다.

지난해 여름 시리아 알레포(Aleppo, 시리아 제2의 도시)에 잠입, 전쟁의 참상을 찍은 그는 이듬해 2월 다시 시리아 북부 하마(Hama)로 향했다. 부아쟁은 전쟁과 재난이 발생한 리비아, 소말리아, 케냐, 아이티 등에서 취재한

프로 사진 작가였고 그의 사진은 프랑스와 영국 주요 언론사에 실렸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이탈리아인 친구 미모사 마르티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신이여, 다른 사람이 거절한 것을 제게 주십시오. 고통과 전투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내일 저의 용기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망 4일 전 친구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끝냈다.

부아쟁의 편지

“결국 도착했어! 터키 당국이 국경 통과를 거부해 다시 한번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국경 가까운 곳에 보호서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야 아무도 없는 땅, 지뢰밭을 지날 수 있었어. 그리고 감시탑 아래 2km에 달하는 강바닥을 건넜지. 붙잡히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저기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시리아 남자를 보고서야 살았다는 걸 느꼈어. 내 등에는 천군만군처럼 느껴지는 카메라 가방이 있었어.

그들은 나를 차에 태우고 두 시간쯤 달려 시리아 하마에 데려 갔어. 사람들은 나를 환대했고 강을 건넜다는 데 감동 받았어.

그날 먼 곳에서 대포 소리를 들었어. 정부군 부대가 하마의 북쪽을 차지하고 반군과 정부군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해주려군.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점령지를 지키려고 폭격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나빠서 그랬는지 공습은 멈췄어. 생활환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 오직 유일하게 좋은 뉴스는 살이 썩을 것 같다는 것뿐이야. 남앞에 물줄을 보려면 사위를 열 번은 헤야겠지만.

오늘은 집을 잃은 몇몇 가족들을 만났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지하나 동굴에 살아. 열악한 생활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이들을 만나곤 바뀌었어.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AFP통신에서 받아 줄지는 모르겠어.

오늘 저녁은 무척 추워. 다행히 터키에서 산 여성용 타이즈가 있었어. 그걸 개입으니 겹칠 만했지. 사격은 20분간 지속됐고 지반이 흔들렸어. 소리가 무척 커서 반경 20km는 들릴 정도니까.

반군 대장이 점심때 양한 마리와 담배 몇 갑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가까운 숲에 들어가 장작을 땀. 대장이 밤에는 모두 기도하게 했어. 반군 중에는 무척 어린 친구도 있어. 그들은 벌써 동료 20명을 잃었어. 어떤 사람들은 다쳤대. 나는 주로 여기서 아부 지아드란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는 한쪽 눈을 잃었어. 그래도 수제 로켓을 만들 정도로 똑똑해. 그는 남을 돕고 나무를 자르고 담배를 주는 등 모든 일을 해. 나는 평편없는 아랍어 실력으로 그에게 말을 붙이고 있어. 결국 이야기가 종교 쪽으로 흘러갔는데 자신이 살라피스트(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더라.

지난 여름 알레포 전투와 비교해 보면, 이번 전투는 그렇게 극심한 것 같지는 않아. 알레포 전투는 더 격렬했거든. 세계 2차 대전 때 파괴된 스탈린그라드 이후 최악의 도시가 알레포라고 하려군. 비록 경험 많은 사진 기자 동료 몇몇이 러시아와 체첸 전쟁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반군 사령관은 내게 프랑스군이 언제 군사적 도움을 줄지 물었어. 나는 전혀 모르는데 말이야! 시리아 내전이 벌어진 지 2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부끄러웠어. 그는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말하려군. 서방이 왜 개입을 두려워하는지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난 사실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서방은 교란을 유일한 책으로 여기는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할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야. 나는 AFP가 원하는 것을 할 뿐이야.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벌어들인 것도 없지.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사가 원하는 사진 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때 맞아, 벌어들였어. 나는 사진에 중독 됐지. 사진을 찍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살아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 어떤 약도 그만큼의 생기를 주진 못할 거야. 이 밤은 여기 도착한 지 3일째야. 늘 그렇듯 바보 같이 책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 그래서 오늘 밤 할 것이 없어. 인터넷은 없고 대화도 제한돼 있어.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대다수 군인들은 무척 친절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걸 즐거워 해. 파리와 프랑스에 대해 1,000번



꿈은 물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동양인인 내가 어떻게 프랑스어를 구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프랑스인이라고 말해 줬어.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처음은 아니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때마다 아무리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해줘도 사람들은 날 중국인으로 봐.

나는 군인들이 프랑스 파리를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할 때마다 힘들어.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사실 노르북에도 파리 사진은 없어) 현실에 충실하고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서야.

술 한 잔 하는 것도 도움은 돼. 신이 풍류한 분이라면, 다음 전쟁은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실 거야. 적어도 나는 여자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포르노 사진을 갖고 있는지 묻더라. 이건 재밌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해.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서도 그들은 그런 사진을 갖지 못할 거니까. 바보 같고 종교적인 도덕주의자들 덕분에.

폭력은 심해지고 있어. 증오는 강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증오심을 그토록 강하게 느끼며 죽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는 걸까? 나는 시리아 홈스(Homs) 지역 주민들이 정부군에게 마구 두드러맞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 그렇게 폭력적이고 도처에 피가 낭자한 걸 본 적이 없어.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울어댔어. 정부군은 그들을 계속 차대지. 막대로 피가 나도록 때렸어. 형편없는 세상이야. 만약 이러한 폭력이 어느 날 목격자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사를 마구하게 될 거야. 서방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배우는데 '신의 재판'을 믿는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까? 폭력이 언젠간 끝나겠지. 나중이 있다면 말이야. 기독교 문화에서는 화해가 무척 중요하잖아.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기독교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선 공산주의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했어. 비교는 여기서 끝낼게.

로제 수사(천주교 수도자)는 '신뢰의 순례'를 통해 화해를 말했어(로제는 2차 대전 가운데 신뢰, 나눔, 화해를 실천할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프랑스를 여행하다 폐제 마을에 정착했다). 이 가르침은 나와 친구들에게 감명을 주었어. 그리고 난 화해를 믿어.

마음에 갖가지 뻔민이 들 때 2차 대전 당시 리비아에서 사망한 프랑스 군인의 기도가 떠올라. '신이며,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 고통과 전후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런 기도하는 것은 내일 저의 용기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씀-

시리아 전쟁으로 사망한 언론인 최대 100명

조금은 두서없이 쓰인 부아쟁의 편지에는 사진 기자로서의 사명감, 전쟁과 학살에 대한 분노, 밥벌이의 서글픔이 묻어난다. 포르노 사진을 요구하는 반군 등 그가 묘사한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 솔직하다. 그의 죽음은 언론인에게 진실하고 조용한 울림을 남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발표한 언론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년간의 시리아 전쟁으로 숨진 언론인은 44~1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큰 것은 아마도 언론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장악된 시리아의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고, 수많은 시리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살과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따라서 숨진 언론인 통계 중에는 시민 기자, 프리랜서 기자,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 혼재돼 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우리 언론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동아시아 언론 중에는 그나마 일본 언론이 시리아 사태 취재에 적극적이다. 일본 프레스TV는 지난해 여성 중군 기자를 파견하기도 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최소 8만 명이 사망한 걸 감안하면 우리 언론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치가 이 정도일 만큼 학살은 심각하다.

국내 언론사 한곳이 지난해 8월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잠깐 취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중군 기자를 보낸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다. 대다수 취재는 인접국을 떠도는 난민에 국한됐다.



부아쟁이 촬영한 알레포의 어린이들



부아쟁이 촬영한 시리아 반군들

시리아가 다른 어떤 분쟁보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 국내 미수교국인 시리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요인도 이유로 꼽힌다.

이런 저조한 관심은 미군이나 다국적군이 시리아전에 개입하지 않은 탓도 있다. 서방 세계 중심으로 뉴스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 국제 뉴스의 현실이다. 국제부원들끼리 밥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뉴스 안 나지만 어떤 나라 사람은 조금만 죽어도 뉴스 되잖아. 목숨 값 가지고 나라마다 순위 매겨도 기사 될 거야.” 전쟁에서도 비싼 목숨 값의 외국 군인들이 개입하는지 여부가 뉴스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뉴스 가치가 과연 맞느냐에 대해선 논의가 이어져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뉴스 가치가 그렇게 고착화됐다는 얘기가.



시리아 사태에 관한 한국 언론의 미비한 관심은 2003년 이라크전, 2001년부터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전과도 비교된다. 당시 여력이 되는 국내 언론사들은 현장에 특파원을 보냈고, 많은 기자들이 ‘임베드 프로그램’으로 전쟁을 취재했다. 미국 국방부가 마련한 임베드 프로그램은 기자가 부대에 배속돼 취재하는 것으로 안전한 취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UPI통신이 2003년 7월 이라크전의 임베드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한 기사를 보면, 많은 기자들이 객관성에 적신호를 느꼈다. CNN의 밥 프랜켄 기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기자들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현상(Stockholm Syndrome, 편집자 주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인 현상)이 있었고 군부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상당한 유혹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반면 임베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재한 영국 BBC의 존 심프슨 기자는 “한쪽에 제한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 취재를 강조했다.

이라크 전쟁 10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0일 미국 언론들은 반성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다.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열 가지 교훈’이라는 기사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미국에 득이 없는 전쟁이었다. 후세인이 숨겨놨다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동 전역은 물론 세계에서 반미 감정을 불러왔으며,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미군의 명분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이라크전을 분석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알레포 시가지(출처 : Reuters)



시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아자즈(Azaz)의 모습

당시 임베드에 참가했던 약 500명의 기자들은 10년 후 이라크전이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 군부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유혹 가운데 얼마나 균형 잡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들의 용기

나는 지난해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실상의 임시정부였던 시리아국가위원회(Syrian National Council)를 취재했다. 한국 언론으로선 최초였다. 당시 2주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리아인들의 민주화 의지와 노력을 5회 전





시리아국가위원회 조지 사브라 임시 의장이 2012년 11월 21일 두바이에서 열린 'the Partnership To Invest In Future Syria'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출처: The National)

면 시리즈로 내보냈다. 이 단체는 올해 시리아 국가연합(Syrian National Coalition)으로 확대됐고, 카타르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UN총회는 5월 15일 반정부 단체인 시리아국가연합을 '정치적 전환기에 필요한 효율적 대화 상대'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로이터 통신(Reuters) 등 많은 해외 언론이 지난해 시리아 내전에 종군 기자를 파견했는데 시리아인들의 외교적 노력과 민주주의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은 반군과 야권 정치인으로 나뉘는데 당시 반군만이 주로 보도됐을 뿐이다. 외신과 차별화된 보도, 필요하지만 취재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자로서의 의무감과 호기심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시리아 내부에 들어가서도 독자적 취재보다는 해외 언론에 의존하거나 전쟁 언저리밖에 취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

었다. '한국 언론인, 분쟁 지역 입성'이라는 타이틀과 사진만으로 기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상은 외신에 다 나오는 내용을 현장 기사라고 내놓고 싶지 않다는 점도 있었다.

사실 종군 기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있었다. 위험한 만큼 빛이 나는 기자로서의 명예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냐는 편견이었다. 그러나 한국 입양아 출신의 프랑스 사진기자 부아쟁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현장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그들의 소명의식과 사진에 미쳐 있다는 열정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한국 기자, 시리아 격전지 입성' 이런 타이틀뿐인 보도일지라도 그 또한 나름 제한된 가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뒤늦게 든다.

종군 기자에 대한 존경을 갖게 해 준 레바논의 동료가 한 명 있다. 지난해 가을 이스탄불, 올해 봄 레바논 취재 과정에서 두 차례 접촉한 오마르 하리쿠스(43) 기자다. 레바논 언론사 알무스따끄발(Al Mustaqbal)의 국내 정치부에 속한 하리쿠스 기자는 전쟁 중에 세 차례 시리아에 들어갔다(레바논과 시리아는 여권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레바논이 시리아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 때문에 국내 정치부 기자가 시리아 뉴스까지 커버한다). 하리쿠스 기자는 자신의 위험한 취재활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두렵지만 그게 나의 일이니까." 기자가 취재하는 데 무슨 이유가 더 있겠냐는 뜻이었다.

시리아의 홈스(Homs), 바바아므르(Baba Amr), 다마스쿠스(Damascus) 등을 취재한 그는 무서워서 처음에는 하루 만에 돌아온 적

도 있다고 한다. 정부군이 산에 주둔하면 그
는 밤에 이동했고, 총 소리가 들리고 탱크 불빛
이 지나다닐 때는 죽을 것 같은 감정도 들었다
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스탄불에 체류할 때 하리쿠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고, 올해 4월 난민촌
방문차 레바논에 갔을 때 그를 직접 만났다. 마
침 하리쿠스 기자가 이집트 취재를 마치고 레
바논으로 돌아온 시점이었기에 만남이 가능했
다. 이슬람 시아파 출신인 그는 특이하게도 수
니파 쪽 언론사에서 일했다. 레바논 시아파는
이스라엘에 대항한 범이슬람주의, 수니파는
레바논 고유의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학생 운동
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이 시아파보다는 수
니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종파 갈등이 심각
한 레바논에서 자신의 종파와 다른 선택을 하
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그는 이 때
문에 시내 한복판에서 두드려 맞고 병원에 입
원하기도 했다.

하리쿠스 기자는 또 다양한 종파 기자들이
설립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에도 속해 있었다.
레바논은 종파별로 언론사가 나뉘어져 객관
적 보도에 어려움을 겪는데 현실적인 여건 내
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보였다.

수시로 테러가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레바논
에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장애인인 된 여기자
도 있다. 국제여성언론재단(IWMF)이 해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활약한 여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용기 있는 언론인상’을
2006년 수상한 메이 시디악(50). 그녀는 레바
논 LBC TV의 정치토크쇼 진행자였던 2003년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al-mustaqbil' (المستقبل) with a header featuring the site's name and logo.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several news articles. The articles are written in Arabic and include images and text.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list of links and a small advertisement for Nissan. The website is titled 'المستقبل' (The Future) and has a sub-header 'Fly MEA. Drive Sixt. Earn more Cedar Miles with Sixt.'.

레바논 언론사 알 무스타프빌 홈페이지

9월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폭탄이 터져 왼
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수십 년간 내전과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휘말렸던 레바논에서 그는 내전
간섭을 하는 시리아를 비판했다. 그녀는 소신
있는 발언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

레바논 출장 당시 시디악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녀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뒤늦게 메시
지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인터넷으
로 늦은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고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주적
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나라를 위해 팔과 다리

를 잃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백 번 그보다 더 수백 번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I realized my dream for free independent sovereign homeland, I do not regret losing an arm and a leg for my country. It was the least I can give and will give a hundred times more a hundred mo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진짜’ 종군 기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종군 기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사실 앞뒤가 안 맞기도 하지만 나는 전쟁을 한두 차례 취재했다고 종군 기자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독자적 취재가 가능한 전문성, 진실을 추구하는 시각의 균형성이 종군 기자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등에서 일해 온 크리스 헤지스 기자는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발칸반도 등 12개 지역에서 분쟁을 보도했다. 죽음의 위기도 수차례 넘겼다. 중남미 비포장도로에서 매복에 당하기도 하고, 이라크에서는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세르비아군 저격수에게 저격을 당했고, 사라예보에서는 하루 천 번의 폭격을 경험하기도 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분쟁 지역에서 일했다.

“총에 맞았을 때, 거칠게 말해서 그건 폭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주위에서 큰 총소리가 들리고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스치

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고통은 없는, 마치 전기 단자를 쥐었을 때 같은 격렬한 충격을 느꼈다. 완전하게 약해지는 느낌이었고, 무엇인가로부터 얻어맞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번개에 맞으면 아마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한다. 나는 즉각적으로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1초 안에 일어난 일이다. 다음 순간 무릎이 꿇이면서 쓰러졌고 큰 소리를 내며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데, 다행스럽게 머리를 다치지지는 않았다. 나는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었고 멍한 기분에 휩싸였는데,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헤지스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 52쪽)

헤지스는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에서 조지 오웰(1936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작가)의 설명을 빌려 총에 맞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한다. 전반적인 책 내용은 전쟁 그 자체에 관한 400여 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됐다. 수식으로 꾸민 미문도 없고 형용사도 최대한 자제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먹고, 씻고, 볼 일을 보는지, 생존에 집중한 책이다. 일종의 전쟁 매뉴얼이다. 이 책은 그러면서도 전쟁의 폭력성, 그 속에서 파괴되는 인간을 말한다.

“전투 중 사람을 죽일 때 아마 몇 번의 감정적인 반응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감정들은 보통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이 얼어붙고 방아쇠를 당

길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살인의 단계인데, 훈련의 결과 반사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다. 살인은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는데, 반복되는 살인은 '살인 중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중간 정도의 거리나 원거리에서 사격할 때 특히 강해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양심의 가책과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는 단계인데, 다시는 적을 사살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데이브 그로스맨은 이것을 '고통과 공포의 끌라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경험은 감정의 격변과 혐오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 총을 놓고 울었다. 피가 흥건했다. 나는 토했고 울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부끄러웠다. 나는 미안해라고 바보처럼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저 다시 토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감정을 거부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단계를 거친 이후의 살인은 더 쉬워진다.'(헤지스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 98쪽)

종군 기자의 요건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용기에 그쳐서도 진짜 종군 기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 속의 인간,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반응하는 인간의 양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학살과 폭력. 이런 것들을 보고, 본 대로 보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쟁을 홍보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학살을 목격한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면 진짜 종군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에 한 번 참여하지 않은 기자가 말이 너무 길었다.

